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23일 목요일 음 8월 17일 (9월)

기상정보

대체로 맑음

23-27℃

파고 0.5-1.5m

21-27℃

파고 0.5-1.5m

22-26℃

파고 0.5-1.5m

22-27℃

파고 0.5-1.5m

해돋이 06:23

해질미 18:30

물때 만조 11:56

00:00

식중독지수 경고

미세먼지 (PM10) 좋음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달돋이 19:54

달지기 08:11

간조 06:14

18:30

자외선지수 매우 높음

나쁨

매우 나쁨

|    |       |    |
|----|-------|----|
| 오전 | 강수 확률 | 오후 |
| 0% | 제주    | 0% |
| 0% | 성산    | 0% |
| 0% | 고산    | 0% |
| 0% | 서귀포   | 0% |

주간예보

내일 구름 많음 21/25℃

모레 구름 많음 21/26℃

월드뉴스

1913생 일란성 쌍둥이 할머니 ‘신기록’

일본서 역대 최고령 등극

일본 할머니 자매가 세계 최고령 여성 일란성 쌍둥이에 등극했다. 기네스월드레코드는 스미야마 우메노와 고다마 고우메 자매가 이달 1일자로 107세 300일이 넘는 나이로 기네스북 '역대 최고령 여성 일란성 쌍둥이'와 '생존 최고령 여성 일란성 쌍둥이'가 됐다고 20일 발표했다. 현재 일본에서 떨어져 지내고 있는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각자 요양원을 통해 공식 인증서를 전달받았다. 스미야마, 고다마 할머니는 1913년 11월 5일 쇼도시마에 태어나 긍정적이고 사교적인 성향으로 자랐다. 이후 고다마 할머니가 삼촌을 도우려 섬을 떠나면서 둘은 어린 나이부터 떨어져 살기 시작했다. 둘은 자주 연락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70세쯤 돼서 함께 불교 성지를 순례했다고 한다. 이들은 함께 세월을 보내면서 최고



고다마 고우메(왼쪽)와 스미야마 우메노.

령 일란성 쌍둥이 기록을 인식하기도 했다. 직전 기록을 보유했던 나리타 킨, 가니에 긴 자매 나이까지 먹는 게 아니냐고 서로 농담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일본인이던 나리타, 가니에 할머니는 107세 175일 나이로 해당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리타 할머니는 2000년, 긴 할머니는 2001년 세상을 떠났다. 일본은 세계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다. 현재 세계 최고령은 올해 118세인 일본인 다나가 가네 할머니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이 용 곤 편집국장 조 상 운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목요일론



이수재  
박사·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 이사

보름달을 보면서 1969년 인간이 달나라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 뉴스에서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을 듣고 어린 나도 부하노동하며 우주인을 보려고 달을 한없이 바라본 적이 있다. 세월이 많이 흐른 뒤, 오늘 다시 그 달을 바라보니 펍방아 옥토끼 형상은 그대로인데, 그동안 밝혀진 과학적 사실과 중첩돼 상상력 발동에 지장을 준다. 그러나 달에 있는 옥토끼가 낮은 지대의 현무암이 만든 그림이라고 해도 옛 선인들의 상상력에는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미 항공우주국에서 우주비행사에게 필수로 가르치던 과목이 기초 지질학

한가위에 달의 토끼를 보면서

이었는데, 이는 달에는 생명체가 살기 어렵고, 돌만 있어서 지질학적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우주비행사들은 색과 조직으로 암석을 구분하는 방법을 배웠고, 현장 학습은 주로 현무암이 있는 화산암 지역에서 이뤄졌다. 이들은 '창세기 돌'을 가져오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정확한 과학적 정보 획득을 위해 지질학자를 우주인으로 훈련시켜 아폴로 17호 때 달에 직접 보냈다. 그 우주인은 지질학적 관점에서 의미있는 달의 돌을 직접 가져왔고, 그 돌중 유명한 '트록톨라이트'에서는 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많이 얻었다. 대학시절 연구실의 표본을 정리하다가 미국에서 보내준 '월석'을 금고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이는 아폴로 11호 임무에서 가져온 시료 중 일부를 미국이 한국의 학자에게 연구용으로 보내준 것이었다. 또 한 번 달과의 우연한 인연이다. 미국 여행 중 베티시장에서 우연히

어렸을 때 보았던 50년전의 달 착륙 서적을 보고 구입했던 것이나, 미국 퍼듀대학에서 달에 처음 발을 내디딘 닐 암스트롱의 동상을 우연히 발견하고 잠시 들떠 있었던 기억 등을 생각하면 달에 대한 특별한 인연은 '저 하늘에 둥근 달'이 있는 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주도의 현무암이 달의 옥토끼 이야기와 연관된 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제주도에서는 아주 흔한 그 암석의 가치를 더 새롭게 느끼게 한다. 지금은 달을 포함해 화성도 인류가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우주 선진국은 경쟁을 가속하고 있다. 여전히 우주인의 필수 과목으로 지질학을 가르치며, 이에는 화석을 찾거나 혹독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생물체를 찾는 현장훈련이 포함된다. 화성에도 현무암이 많이 있으며, 또 용암동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동굴에는 화성의 혹독한 환경에서 생존한 생물이 있을지도 모

른다. 이를 고려하면 제주도는 우주인의 외계현장탐사 모의 훈련장으로 적격이다. 서귀포층에 화석도 나오고, 용암동굴의 호수에는 어둠에 적응해 눈먼 물고기가 발견되는 등 혹독한 환경에 적응한 생물이 있기 때문이다. 향후 제주도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우주지질학 관련 전문가가 활동하면서, 제주의 지질학적 가치를 더 탐구하고 또 우주현장 모의 훈련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제주의 지질유산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산업화는 늦었지만 빠른 정보화로 선진국에 진입했듯이, 이제 더 빠른 우주화로 국민의 생활수준과 자긍심이 더 높아졌으면 한다. 국내에서도 우주 지질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 중 누군가가 향후 달의 돌이나 화성의 돌을 직접 가져올 수 있는 우주비행사가 나오기를, 추석 달을 보고 소원 중 하나로 포함했다. 소원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열린마당

위협받는 우리 식탁, 우리 먹거리



정해운  
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경영지원단장

먹거리는 인간 생존의 문제로 우리는 생존의 위협 속에 살고 있다. 일례로 대표적 서민 먹거리인 라면 등 식료품의 경우 원재료(수입)값 인상 또한 결국 밥상물가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최근 외부공급(수입) 충격으로 인한 물가부담은 인플레이와 가계소비 및 경제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까지 자아내고 있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쌀을 제외하면 3.1%도 되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수입농산물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식량위기 대처능력에 있어서도 심히 걱정스럽다. 국제곡물가격 상승은 가계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생존과 결부된 문제이다. 우리의 식량·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산업인 농업·농촌

안보에 많은 관심이 필요할 때다. 농축산인 스스로도 자구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수입농축산물에 대응해 차별화된 품질로 우리 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신선농축산물 생산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기후환경과 자연을 지키고 다양한 생물을 보호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이라 하겠다. 따라서 농축산인이 주인공인 견고한 조직체이자 강력한 무기인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농촌사회 강화는 물론 젊은이들이 모여들 수 있는 농업·농촌, 젊은이의 마음을 얻어 창의성이 넘쳐나는 농업·농촌을 만들어야 한다. 농축산인들의 자조조직인 지역조합을 기반으로 협동에 입각한 새로운 영농기술을 개발·공유·확대해 경관을 아름답게 하면서 생산을 높여 농촌사회가 더 강하고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 농업·농촌변화와 함께 사회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20여년 전 신도불비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다. 이제라도 도·농(도시와 농촌)이 공감대 형성을 통해 상생하는 신도불이 운동이 다시금 불붙기를 기대해 본다.

청렴을 생각하는 공직자의 자세



김민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을 생각하는 공직자의 자세는 무엇일까? '공무원에게는 따뜻한 맥주와 찬 샌드위치가 적당하고, 그 반대가 되면 위험하다'는 핀란드 격언이 있다. 핀란드의 새내기 공무원을 위한 윤리강령으로도 쓰이는 이 말은 작은 시작이 부지불식간에 부패의 시작점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공직자는 시원한 맥주와 따뜻한 샌드위치조차 경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알려준다. 공직자는 항상 부패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스스로 올바른 가치판단의 기준을 세워 현명하게 부패를 차단할 줄 알아야 한다. 또 공직자는 일상 속 청렴을 실천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시대와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자세도 다양해지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청렴은 공직자가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 자세임은 변함없기 때문이다. 간혹 청렴을 거창하고 어려운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청렴은 일상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소소한 일에서 시작된다. 공직자가 짧은 문의 전화에도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맡은 바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확실한 도움을 드리는 것 등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바른 습관을 들이고 먼저 실천하는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청렴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는 본립도생(本立道生:기본이 바로 서면 도가 생긴다)의 마음으로 공직자가 지녀야 할 기본, 청렴을 견지하고, 반부패를 넘는 적극적 청렴을 지향하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함으로써 신뢰받는 교육행정, 청렴한 제주교육이 실현될 수 있음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몸소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요목

유라조생

4년생

황금향

5년생

감평(레드향)

3,4년생

한라봉

4년생

천혜향

4년생

성전온주

2년생

유라조생

1년생

천혜향

1년생

감평(레드향)

1년생

탱자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2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몬(레몬), 한라봉, 탐나는봉, 사량향(신품종천혜향), 나스미(카라향), 탐빛1호, 명유자,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히라베니(궁천번이치), 히로시마 7호, 일남1호, 맹자묘목(1000본 이상)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5년생 화분·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대)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요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에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알티 등 일반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라실생 하우스굴 많은 견학바랍니다.

·유라조생 1, 2년생

·천혜향 1, 4년생

·레드향(무독) 1, 4년생

·하례조생 3년생

·고림조생 5년생

·한라봉 1, 2년생

·하굴 4, 8년생

·궁천 3, 5년생

·궁천번이치(오히라베니) 2, 3년생

·레몬 3년생

·황금향 1, 2년생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수 18-2003-20-08

010-2699-2355